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 노동본부 보도자료

문의	이승환 선임비서관 (이용우 국회의원실)	연락처	010-8784-1878 (lywchosim@naver.com)
----	--------------------------	-----	--

배달플랫폼노조,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 정책협약도 함께 체결

- 5월 28일(수)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및 민주당 선대위 노동본부 정책협약 체결
- 고용안정성 확대,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 적정배달료 기준 마련 등 노력해 나가기로
- 민주 “플랫폼 노동자들처럼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본법 제정해야”

28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는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노동본부(위원장 김주영 · 최철호 · 김영훈)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지지선언 및 협약식에는 중앙선대위 노동본부의 김주영 본부장, 김영훈 본부장, 이용우 부본부장, 신동호 노동희망실천단장 등이 참석했다.

정책협약서에는 ▲배달플랫폼 노동자의 고용안정성과 처우 개선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 불공정계약 방지 위한 법제도개선 ▲적정배달료 기준 마련 등에 노력 ▲야외 이동노동자 기상여건 대응방안 모색 등이 포함됐다.

대표발언에 나선 홍창의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은 “어제 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배달플랫폼노조의 이재명 후보 지지를 결정했다” 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가 되어있지 못한 플랫폼 노동자들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되어 새로운 사회로 가는 동력을 충분히 얻어야 한다고 보았다” 고 지지 취지를 설명했다.

배달플랫폼노조와 정책협약을 체결한 김영훈 본부장은 “이재명 후보 노동공약 중 첫 번째가 플랫폼 노동자들처럼 노동법 밖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늘 협약은 우리들의 머릿속에만 있었던 플랫폼 노동자 보호방안들을 실현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이용우 부분부장도 “배달플랫폼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그리고 제대로 된 노동3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국회 환노위에서 역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끝)

[붙임 1. 정책협약서]

[붙임 2. 협약식 현장사진]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 노동조합 정책협약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과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배달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배달플랫폼산업의 발전을 위해 아래의 정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

1. 배달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 안전 배달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2.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 불공정계약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제도개선에 협력한다.
3. 배달노동자의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의무화 방안을 모색한다.
4. 배달노동자의 직업 안정화 및 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해 자격제도 도입과 적정배달료(배달노동자 최저임금)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5. 노조법 2, 3조 개정으로, 원하청 직접 교섭권 및 플랫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추진한다.
6. 산업안전보건법을 노무제공자로 확대하고 야외 이동노동자가 폭염, 악천후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2025.5.29.



더불어
민주당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 홍 창 의**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 본부장 김 영 훈**

붙임 2

